

‘내가 왜 걷고 있을까?’ 물으며 걷고 또 걷는다

사단법인 ‘좋은 벗’의 ‘걸어서 거제한바퀴’ 두번째 행사

〈화엄경〉에는 선재동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53명의 선지식을 만나려고 길을 떠나는 구도기(求道記)가 담겨 있다. 이처럼 혜초 스님의 〈왕오전축국전〉, 현장 스님이 인도에서 초기경전을 들은 것 또한 순례의 힘이였다.

부처님은 길 위에서 평생을 대중과 함께 하시다 열반에 드셨다.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 선사들이 위법망구(爲法忘軀)하던 길들을 경남 거제의 청년 불자들이 걷기 시작했다. (사)좋은벗(대표 박기련)은 10월 1일 ‘걸어서 거제한바퀴’ 제2기 행사로 이수도 일주에 나섰다.

이수도는 경남 거제시 장목면에 속한 섬으로 면적 0.38km², 해안선 길이 5km 규모의

김원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기획개발팀장은 “2009년 3월부터 창단을 위한 준비모임을 시작한 이래 단 한주도 빠짐없이 진행되다 보니 좋은벗 회원들이 매주 동참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거제의 아름다운 길을 걷겠다는 초발심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행사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명절과 공휴일은 물론 폭염과 혹한 속에서도 곳곳이 행사를 진행했다. 덕분에 둔덕면 슬며마을에서 사등면 청포마을로 이어지는 잊어진 옛길을 찾아가 하면, 농부에게서 직접 가조도 특산물인 흰고구마를 맛보기도 했다. 그렇게 거제도를 한바퀴 다 돌고 2월 20일부터 두 번째 대장정을 진행해 왔다.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은 ‘걸어서 거제한바퀴’ 인 제1기 행사에서 “매순간 절차탁마(切磋琢磨) 할 것”을 조언했다. 스님은 “길을 걷는 가운데 함께 걷는 도반과 길 위에서 만난 이웃, 대자연을 훌륭한 도반으로 삼아 소통하고 교감하며 끊임없이 마음을 갈고 닦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삶의 터전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자 한다면 터전을 두 발로 걸어보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라며 “그 속에서 지역민의 이야기를 듣고 진솔한 모습을 발견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 스스로에 대해 성찰해 곧 깨달음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도 선착장에서 마을길을 따라 구릉정상으로 이어지는 산길을 오르다보면 어느새 이마에 붉은 땀방울이 맺힌다. 첫 걸음을 땀 때는 처음 참선 수행에 들 때처럼 ‘내가 왜 왔을까?’ 부터 저녁에는 무엇을 먹을지, 요즘 신경 쓰는 일에 대한 생각 등 온갖 번뇌와 망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하지만 한없이 이어진 길을 따라 걷다 보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구범여행 새로운 불교포교 모델로 제시돼

동서로 길게 뻗어있다. 이날 걷기 행사는 이수도 선착장에서 78m 높이의 구릉에 오르고, 숲길을 따라 섬을 일주하는 코스로 약 2시간 동안 이어졌다. 행사에는 제2기 좌장을 맡은 김윤경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사무국장과 4명의 좋은벗 회원들을 비롯해, 거제시민 20여 명이 동참했다.

최근 ‘걸어서 거제한바퀴’에는 거가대교 완공으로 인해 부산 시민의 참여도 늘고 있다. ‘걸어서 거제한바퀴’는 거제도의 길을 걸으며 역사와 생명, 이웃의 고마움을 깨닫기 위한 행사이다. 2009년 3월 29일 거제도 남단의 학동해변가에서 시작된 좋은벗들의 발걸음은 65주차인 2010년 7월 3일 첫 번째 대장정이 끝났다. 이들은 2년 6개월간 거제도의 해안길 7000리, 내륙길 300리, 12개의 산과 6개의 섬 길을 따라 걸었다.



참가자들이 삼배를 하는 모습



이수도를 완주한 참가자들의 표정이 한없이 밝다.



‘걸어서 거제한바퀴’ 행사의 참가자들이 자연을 벗삼아 이수도를 걷고 있는 모습. 발걸음이 가볍고 경쾌해 보인다.

면, 어느새 산란했던 마음자리가 고요해졌음을 알아차린다. 그리고 풀잎과 바람 소리에 집중하게 되고, 걷고 있는 내 안의 나와 마주하게 된다. 때문에 ‘걸어서 거제한바퀴’의 걸음은 어느 등산과는 엄연히 다르다. 진여(眞如)를 찾아가는 행선(行禪)이자

구범여행에 가깝다.

박기련 좋은벗 대표는 ‘걸어서 거제한바퀴’가 2년째 이어온 원동력을 ‘소통’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길 위에서 만난 자연과 여러 생명체와 호흡하며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고, 걸음 걸음에 반성과 참회의 꽃을 피웠다”며 “좋은 벗들과 함께 걷는 즐거움 속에서 차별과 소외를 넘어 배려와 소통을 배운다”고 말했다.

도법 스님의 제안으로 처음 시작된 ‘걸어서 거제한바퀴’는 박기련 대표와 뜻을 같이하는 청년 불자들이 모여 현재 행사를 이끌고 있다. 지난 달 대원상 포교대상을 수상하기도 한 오정림 미소금융거제지점장과 서명희 파라미타거제지회장, 김윤경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사무국장은 행사의 가장 핵심적인 멤버이다.

좋은벗과 ‘걸어서 거제한바퀴’ 행사는 아직까진 불교적 색채를 많이 내세우고 있지 않다. 종교 간의 장벽과 지역감정, 세대 간의 격차 등을 뛰어 넘어 거제도와 걸음

걸음을 좋아한다면 누구나 길 위에서 좋은 벗이 될 수 있다.

김윤경 2기 좌장은 “포교라는 것이 꼭 사찰에서, 종교적 의식을 통해서만 이뤄지진 않는다”며 “요즘 젊은이들은 함께 느끼고 실천하는 가운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만큼, 함께 걷다보면 실천적인 불교를 보여주고, 참여의 길을 열어주는 새로운 포교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걸어서 거제한바퀴’에는 그들만의 독특한 의식이 진행된다. 바로 삼배다. 이수도의 선착장에서 함께 길을 떠날 도반들은 서로를 마주보고 둘러서서 삼배로 인사를 나눈다. 이러한 인사는 하루의 일정을 마치는 길의 끝에서도 반복된다. 절집에서 말하는 삼배는 부처님 가르침 스님에게 삼보에 귀의한다는 의미로 세 번 절을 한다.

행사의 삼배는 혼자서는 외로움 이 길을 함께 걸어줄 도반과 자연에게 가까이 몸을 낮추는 하심(下心)을 배우는 것이다. 행사에 참가한 유상규 씨는 “거제 사람들이 사

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옛 사람들의 자취가 많이 남아있어 내가 사는 지역을 이해할 수 있어 좋았다”며 “걷기가 에너지 소모하는 게 아니라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계영 씨는 “고향인 거제도의 속살을 보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며 “이 지역의 토박이지만 빠른 산업화로 거제의 순수한 모습을 많이 잃어버려 아쉬웠는데,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옛 모습 그대로를 간직한 숨겨진 길을 발견하는 재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걸어서 거제한바퀴’는 단순한 건강 증진이나, 단순한 여행코스가 아닌 거제도의 흙 한줌, 풀 한포기, 바람 한줄기, 부서지는 남해의 바다를 온전한 모습 그대로 지켜나가기 위해 길에 오르는 것이다. 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길 위에서 얻은 깨달음의 기쁨을 나누는 청년 선객들의 아름다운 구범여행이다. (055)632-0366

박지원 객원기자 hobit777@hanmail.net

사찰 등 록 안 내



귀의 삼보하옵시고!

불철주야 불국토의 건설을 위하여 기도정진 하시는 전국의 스님 및 법사님들 중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포교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면서 아직 사찰 등록을 미루고 계시는 분은 본 재단에서 사찰등록을 안내해 드립니다.

■ 사.암등록시
사암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증, 법사증을 교부함.

■ 신청자격
부처님을 모시고 계시는 스님 및 법사, 또는 단체.

■ 참고사항
현재 각 종단에 사단법인이 아니면서도 사단법인 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사찰 등록증을 발행하는 단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법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인터넷등기소로 들어가 상호검색을 하시면 바로 법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잘 살펴보고 신중히 선택해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재단에 사찰등록을 하시면 은행에서 사찰명의로 된 법인기부금통장과 은행에서 법인카드를 발급해 드리며, 사찰을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 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타 은행에서 신도님들이 사찰법인 통장에 입금 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평화재단

(우)110-816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75-1번지 부원빌딩 310호 전화 : 02)3217-3217입니다. / 이메일 : wbstf@yahoo.co.kr

